

## ‘경기동부연합’의 기원과 형성, 그리고 고립

임미리

한국학중앙연구원

### 〈논문요약〉

이 글은 수십 년 동안 폭력과 빈곤으로 낙인찍힌 도시(광주대단지-성남시)에서 성장한 인물들이 사회의 차별과 배제의 기억을 운동역량으로 동원하여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지역 정치세력으로 성장했으나 결국 기억의 고착과 운동의 퇴행으로 고립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통합진보당 내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은 2012년 4·11 총선을 통해 외부에 알려졌으며 지역적으로는 성남시, 이념적으로는 주사파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들의 기원은 성남시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광주대단지에 있고,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과 1980년대 중후반 주사파의 진출과 함께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했다.

이들은 광주대단지와 성남시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기억을 부정이 아닌 긍정의 형식으로 내면화하여 운동 역량으로 동원했다. 그러나 기억의 고착과 집단의 뒝은 스스로를 차별과 배제의 희생양으로 여기

게 했고, 이것은 비례대표 경선 사태를 통해 폭력성, 부정성, 연대성, 영토성으로 나타났다.

■ 주요어: 경기동부연합, 광주대단지, 주사파, 집단기억, 하위주체

## 1. 서론<sup>1)</sup>

경기동부연합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내 당권파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력으로 2012년 4·11 총선을 통해 외부에 알려졌으며 지역적으로는 성남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념적으로는 주사파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경기동부연합이라는 명칭은 1991년 결성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 산하의 성남·용인·광주·하남·이천·여주를 포괄하는 지역단체명에서 비롯되었으며 전국연합 해체 이후에는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 성남시당의 구성원들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다. 2000년 창당한 민노당부터 2011년 12월 민노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가 통합해 창당한 통진당에 이르기까지 경기동부연합은 울산연합, 인천연합과 함께 강한 패권주의적 면모를 보이며 당권을 장악하여 왔다.

2012년 4·11 총선 당시의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사태(이하 비례대표 사태)는 한국 진보운동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중

---

1) 미흡한 논문을 대폭 보완할 수 있게 지적해준 세 분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심에 있던 경기동부연합은 비례대표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몰려 보수 진영뿐 아니라 진보 진영으로부터도 집중 공격을 받았다. 선거 과정에서 잠시 불거졌던 비례대표 부정선거 문제가 선거 직후 유시민의 참여계를 중심으로 다시 제기되면서 극심한 갈등 양상을 보였다. 진보정당 내 정파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노당 시절 자주파<sup>2)</sup>와 평등파<sup>3)</sup> 간의 오랜 갈등은 1980년대 학생운동권의 NL-PD 갈등에 뿌리를 두는 것으로 결국 분당 사태로 이어졌다. 그러나 비례대표 사태 당시의 분열은 PD계뿐만 아니라 같은 NL계인 자주파 내부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이 특징이다. 비례대표 사태에서 경기동부연합은 보수 진영, 진보 진영 내 PD 세력, 그리고 같은 NL계의 다른 세력들, 즉 자신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세력의 협공을 받아야 했다. 여기에 가담하지 않은 것은 광주전남연합과 서울연합 일부뿐이었다.

언론에서는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으로 주사파 계열의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이하 외대 용인) 운동권을 지목하면서 이를 ‘마이너 의식’과 등치시켰다. “지방 캠퍼스 출신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힘들니까 운동판에서 크겠다는 생각(이정현 2012, 104)”이 현재의 경기동부연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동부연합의 독자행보를 마이너 의식에서만 찾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석기 등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인물들이 소속되었던 용인성남지역총학생회연합(이하 용성총련)은 근대문화에 버금가는 집단성과 일체감으로 유명했다. 유사한 운동 문화를 가진 대학으로

2) 전국연합의 인천연합, 울산연합,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서울모임 등이 결성한 자민통 전국모임이라는 민족해방(NL)계 파벌들의 연합체와 민주노총 내 NL계 최대 파벌인 국민파가 모인 파벌연합(정영태 2012, 89).

3) 당내 전진, 민주노총 내 중앙파를 중심으로 자율과연대, 평등연대 등의 민중민주(PD)계 파벌 연합(정영태 2012, 89).

는 서울의 고려대와 광주의 전남대·조선대를 꼽을 수 있다. 비례대표 사태에서 경기동부연합과 행보를 같이 하면서 범경기동부연합으로 분류된 인물들(광주전남연합과 서울연합 일부)의 출신 대학도 바로 이곳이다. 이들 학교의 공통점은 남다른 투쟁의 기억을 가졌고 그 속에서 특유한 운동 전통과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거꾸로 경기동부연합의 운동 문화를 만들어낸 집단기억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가 경기동부연합의 기원으로 외대 용인보다는 성남시라는 지역적 기반에 주목하게 된 단초는 4·11 총선에서 성남시 중원구의 예비 후보로 원래 지역위원장이었던 정형주 대신 〈민중의 소리〉 대표인 윤원석이 나섰다는데 있다. 총선 직전 윤원석의 성추행 전력이 문제가 되어 후보가 김미희로 전격 교체되었는데 진짜 이번은 윤원석의 후보 내정 자체라 할 수 있다. 이전 선거에서 중원구 후보였던 정형주는 1988년 외대 총학생회장 겸 2기 전대협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민노당 시절 높은 득표율로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sup>4)</sup> 그런데 야권연대로 반드시 당선되어야 할 선거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제치고 지역 기반이 약한 신인이 후보로 나온 것이다. 둘 다 외대 용인 출신이고 오히려 84학번인 정형주가 윤원석의 2년 선배이다. 이석기가 대표를 있는 CNP전략그룹의 모기업인 〈민중의 소리〉와의 관계도 비슷했다. 정형주 역시 〈민중의 소리〉 전신인 한국민족민주인터넷 방송의 대표를 역임했다. 차이는 출신 고교였다. 정형주가 서울 성동고등학교를 나왔다면 윤원석은 성남의 성남서고등학교를 나왔다. 윤원석은 성남시 출신인 것이다.

언론에서는 성남시를 경기동부연합의 활동 기반 정도로 소개했지만

---

4) 경기도 전체의 민노당 평균득표율이 제16대 10.24%(5곳 출마), 제17대 8.0%(23곳 출마), 제18대 6.60%(21곳 출마)일 때 정형주는 제16대 21.48%, 제17대 20.75%, 제18대 13.60%를 득표했다. 울산과 창원을 제외하고는 전국 최고 수준에 속하는 것이다.

경기동부연합에게 있어 성남시는 그러한 의미를 뛰어넘는다. 비례대표 사태뿐 아니라 민노당 시절부터 경기동부연합은 자주파 내 다른 어느 정파와도 구분되는 특성을 보였다. 그것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집단이 가진 공통의 기억이 무엇인지, 그 기억은 무엇에서 기원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의 구성원들에게 각인되었는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경기동부연합이 울산연합·인천연합과는 무엇이 다르고, 또 왜 유독 광주전남연합과 고려대 출신 등의 서울연합 일부만이 경기동부연합과 행보를 같이 했는지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성남시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광주대단지 는 고도성장시기 정부의 철거민 강제이주 정책에 따른 최대의 집단적 희생양이면서, 1971년 박정희 정권 최초의 도시봉기가 일어난 지역이다. 봉기 이후 광주대단지는 폭동과 난동의 도시로 낙인찍히면서 기존의 차별과 배제가 심화되었고 이는 1973년 성남시로 승격한 이후에도 1990년대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경기동부연합 세력의 기원이 성남시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광주대단지에 있으며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과 1980년대 중후반 주사파의 진출과 함께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집단기억의 형성 차원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집단이 기억을 만들 듯, 기억이 집단을 만든다. 집단은 기억의 공동체를 지향하며 공동의 기억을 통해 일체감을 확인하고 유대를 강화한다. 알바슈는 ‘집단기억’은 ‘역사기억’과 구분되며 집단기억은 집단의 삶과 연계된 구체적인 것이고 집단적 정체성과 정통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안병직 2002, 176-180). NL은 PD에 비해 집단기억에의 귀속성이 강하다. NL의 반계통일전선은 기존의 가치관과 관행으로서의 사회적 정신 내지 사회의식에 근거해 ‘저항행동의 틀’을 구성하게 하였다. ‘민족’을 통해 과거의 고통과 저항의 집단적 기억을 붙잡아 뚝으로써 대

중화전략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이창언 2011, 8·46). 광주대단지 기억은 성남시 내 NL과 PD를 불문한 모든 운동세력들에게 공통된 것이지만 NL의 경우 집단기억의 활용에 더욱 유리한 해석들과 조직문화를 가졌다. 이 글은 NL계 주사와 그룹으로 분류되는 경기동부연합 역시 그러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한편 자주파 내에서도 경기동부연합만이 갖는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이 글에서는 라나지트 구하(Ranajit Guha)가 구체화시킨 ‘서발턴(subaltern, 하위주체)’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Guha 1983). 서발턴은 ‘스스로를 말할 수 없는 사람’, 설령 말하더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타자의 시점과 언어에 의해 지워져버리고 마는 존재이다. 그람시의 『옥중수고』에서 비롯된 ‘서발턴’은 한 사회에서 헤게모니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종속집단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띠는 한편, 마르크스주의에서 혁명의 주체를 논할 때 흔히 배제되었던 부차적인 집단, 즉 이중적으로 소외된 집단들을 포괄한다(강옥초 2002, 139-40). 이 연구에서는 비례대표 사태에서 경기동부연합이 보인 모습이 서발턴과 닮아 있으며, 이는 스스로를 차별과 배제의 희생양으로 여기면서 부정을 통해서만 자기를 인식하고, 폭력으로서만 자기를 드러낼 수 있게 된 결과임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 글은 수십 년 동안 폭력과 빈곤으로 낙인찍힌 도시에서 성장한 인물—광주대단지 키드—들이 사회의 차별과 배제의 기억을 운동역량으로 동원하여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지역 정치세력으로 성장했으나 결국 기억의 고착과 운동의 퇴행으로 고립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그러나 거꾸로 경기동부연합의 특성, 나아가 비례대표 사태의 원인을 광주대단지 기억으로 환원시키려는 주장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이 연구의 특징은 지역 정치세력의 형성 과정을 집단기억의 측면에서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집단기억이 실체화되는 공간으로서의 도시가 갖는 역사적 변

화와 정치세력의 성장을 상호관계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데 있다.

## 2. 차별과 배제의 기억: 광주대단지

1970년대와 1980년대, 서로 다른 두 개의 ‘광주’에서 그 시대 최대 규모의 민중봉기가 일어났다. 하나는 1971년 8월 10일 경기도 광주군(廣州郡) 중부면에 건설된 광주대단지에서 일어난 8·10 사건이고, 또 하나는 1980년 5월 전라도 광주(光州)에서 일어난 광주민중항쟁이다. 각기 40여 년과 30여 년이 흐른 두 사건에 대한 기억의 공통점이 장소와 관련되었다는 데 있다면, 차이점은 그 기억의 계승 여부에 있다. 광주민중항쟁의 기억이 청년·학생과 지식인들에게 계승되어 1980년대 사회운동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면, 8·10 사건의 기억은 이후 사회운동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역사에서 사라져버렸다. 또 광주민중항쟁이 광주(光州)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면, 광주대단지를 기반으로 하여 성장한 도시인 현재의 성남시는 도시의 정체성이 1971년 사건은 물론 광주대단지라는 이름과 연결되는 것을 거부하여 왔다. 성남시의회는 2011년 8·10 사건 40주년 기념사업비 6,592만 원을 삭감하고,<sup>5)</sup> 2012년에는 8·10 사건 증언록 발간비 2,070만 원을 삭감했다.<sup>6)</sup> 그러나 광주대단지와 8·10 사건은 공동체의 역사에서는 사라져 버렸지만 소수를 통해 기억이 전승되어 왔다. 기억의 내용은 차별과 배제

5) 제179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7.13.

6) 제184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06.04.

였고 이유는 빈곤과 범죄였다.

광주대단지는 1960년대 말~1970년대 초 정부의 철거민 강제이주 정책에 따른 최대의 집단적 희생양이면서, 박정희 정권 최초의 도시봉기가 일어난 지역이다. 또 광주대단지가 시로 승격하면서 탄생한 성남시는 광주대단지 시절 20평으로 분할해 놓은 필지로 인해 이후 수십 년 동안 저소득층에 한정된 진입·전출이 이어지면서 도시 전체가 ‘못사는 동네’, ‘우범지역’으로 낙인찍혔다. 수천만 평이 넘는 지역에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sup>7)</sup>이 한꺼번에 통틀어 ‘가난한 동네’, 가난하기 때문에 범죄가 많은 동네, 무서워서 가지 않고 기피하는 동네가 되어버린 것이다.

성남시 도시 전체가 도시빈민지역의 대명사가 된 까닭은 성남시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광주대단지 개발 시기에 일괄적으로 구획된 20평의 분양지에 기인한다. 당시 원주민 대 이주민 비율이 4% 대 96%였는데(대통령보고서 1971/10/14), 전체 가옥수가 23,988동이었으니 이 중 4%를 제외한 23,028동 중 은행동 관사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20평이었던 셈이다. 8·10 사건으로 정부가 철거민 위주 도시 조성계획을 철회하고 중산층을 유치키로 하면서 일반 주택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했지만 기존에 들어선 2만 필지 가량의 20평형 주택은 2013년 현재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성남시의 경우 1970년대 고도성장 시기에 도 도시 전체는 성장했지만 거주민들은 대지 20평에 건평 10평 남짓의 소형가옥의 도시 서민들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었다.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 이후 대단지 건설 사업이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1973년

---

7) 면적: 1971.8.18 경기도 직할 성남출장소 이후 141.70km<sup>2</sup>, 42,864,250평.

인구: 1971년 138,867명, 1973년 190,580명, 1980년 376,447명, 1990년 540,764명(성남통계연보).

성남시로 승격되었다. 시 승격과 더불어 도시는 급팽창했으나 광주대단지 시절과 마찬가지로 성남시는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이었다. 대단지 시절 가파른 산비탈에 20평 규모로 지어진 ‘브록크집(벽돌집)’은 1980년대 반지하층을 포함한 3층집으로 개조되었다. 1970년대 방 하나를 세 놓았다면 1980년대에는 아래위층에 세를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일렬로 늘어선 20평짜리 집들 사이의 골목길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2미터 남짓이다. 아래윗집에서 울리는 자명종 소리와 앞집의 텔레비전 소리도 그대로 들리고 있다.

1968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광주대단지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서울시 외곽의 철거민 정착지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서울시 경계를 넘어 당시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지 조건은 이주민들이 일터로 가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아예 차단하였고, 경제생활 외의 다른 부문에서도 주민들을 외부와 격리시키고 배제시키는 역할을 했다. 고도성장 시기 광주대단지 이주민만이 소득 상승은 물론 교육 기회까지도 차단당한 채 빈곤이 심화되고 재생산되었다(임미리 2012).

광주대단지로의 이주가 첫 번째 차별과 배제였다면, 두 번째 차별과 배제는 1971년 8·10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단지 6시간 동안 일어난 사건에 불과했지만 3만~6만 명에 달하는 대단지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정권을 깜짝 놀라게 했고 거꾸로 도시민 전체가 난동과 폭동의 주범으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광주대단지에 대한 폭력과 범죄의 이미지는 사건 이전부터 존재했다. 일간지에 “광주군 중부면 대단지 내에 29일 현재 폭력배들이 날뛰고 있어 10만여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경향신문 1971/06/17)”라고 보도되는가 하면 1970년 5월의 대통령보고서에는 “식생활에 쪼들린 나머지 대부분의 주민들은 신경질적이며 저녁에는 폭행 등 싸움사건이 많음(대통령보고서 1971/05/16)”이라고 기록되

어 있다. 사건이 만들어낸 더 큰 이미지는 ‘공포’였다. 사건은 당초 세상이 성남시에 대해 갖고 있던 폭력과 범죄의 이미지에 ‘공포’를 덧씌웠다.

사건 당시 광주대단지에는 ‘산모가 갓난아기를 삶아먹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소문은 사실이기도 했고 아니기도 했다. 서울로부터 격리되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갈수록 먹고살기 힘들어진 광주대단지 사람들은 ‘아기를 삶아먹은 산모’ 이야기로 공포를 전유하고 있었던 것이다(임미리 2012, 257-258). 주민들이 느꼈던 공포는 사건 후 광주대단지 주민들에 대한 외부 세계의 공포로 바뀌었다. 대단지 사람들은 ‘아기를 삶아먹는’ 사람들이 되었고, 폭력과 범죄, 난동을 일삼는 사람들이 되었다. 1988년 대학 입학 초 나는 성남에 대한 전설 같은 소문을 들었다. 산모가 아기를 삶아먹었다는 바로 그 얘기였다. 공포를 전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외부의 공포는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사건 17년 뒤 서울 어느 대학생의 귀에까지 전달된 것이다.

성남시와 주민들에 대한 세상의 공포는 추상적인 데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차별과 배제로 나타났다. 이력서에 주소를 성남시로 쓰면 취업이 잘 되지 않았고(하동근 구술 2011/06/02), 사람들은 성남시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성남시 낙생면(현 분당구) 원주민이었던 최만순(1960년생)은 1980년대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친구들에게 자기 집 과수원에 놀러오라니까 무섭다고 거절당한 기억을 갖고 있다(최만순 구술 2012/06/21). 1990년대 초반 강남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선 별은 “같은 반 친구가 부친의 사업이 망해 성남시로 이주해 누나와 함께 세를 살았는데 범죄 많은 동네라고 친구들이 가기를 꺼려했다”고 기억했다(선 별 구술 2012/08/01).

성남시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공권력 차원에서도 이뤄졌다. 사건 이후 정부는 대단지에 경찰병력과 정보·수사요원을 추가 투입했고 이주민

들에 대한 일상적인 억압체계를 조성했다. 사건 다음날 작성된 대통령 보고서에는 “집단적 행동에 대비하여 사전동향을 파악하고 진압부대 편성. 자체진압부대 103명 365개의 장비 보유, 인접 5개 지역 190명 및 서울 경찰기동대 492명의 지원체제 확립”이라고 되어 있다(대통령보고서 1971/08/11). 유신체제에서 막걸리간첩이 유행하긴 했지만 광주대단지에서는 일상적인 일이었다. 윤홍길의 「아홉 썰레 구두로 남은 사내」도 광주대단지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뒤 일상적으로 감시를 당하는 한 사내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사건 이후 대단지는 잔뜩 겁을 먹고 숨을 숙이는 동네가 되었던 것이다(임미리 2012).

8·10 사건 이후 광주대단지가 성남시로 승격하면서 현재의 분당구가 성남시로 묶였다. 당시 농촌 지역이던 분당구에 1990년 이후 분당과 판교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이전과는 또 다른 차별과 배제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부터였다. 분당 사람들은 자신들을 성남 시민이 아니라 분당시민으로 불렀고 “우리 애들을 어떻게 같은 학교에 보내느냐(박봉준 구술 2012/08/16)”고 항의하기 일쑤였다. 심지어 아파트 입주 직후인 1992년부터 분당을 성남시에서 분리시키자는 주민운동이 벌어졌다(디지털성남문화대전). 40년 전 대단지 주민들에게 가해지던 차별과 배제가 2013년 지금도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 아니 오히려 강화된 셈이다.

광주대단지에서 성남시에 이르기까지의 오랜 사회적 차별과 배제는 이후 성남시가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지역 거점화하는 배경이 되는 한편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지역 정치세력이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다.

### 3. 경기동부연합의 주도세력과 형성 과정

#### 1) 기억의 호출: 광주(廣州)와 광주(光州)의 만남

성남시는 광주대단지 시절부터 저소득층과 소형 공장 밀집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1970년대부터 외지의 대학생들이 들어와 활동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제일실업중고등학교와 대학생봉사단이 있다. 제일실업중고는 연세대 노정현 교수의 도시빈민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아 1971년 연세대 신학과 4학년생인 최규성 씨가 시작한 야학에서 발전했다(동아일보 1993/03/01). 제일실업중고는 성남시 노동자들의 의식 발전에 일부 영향을 미치긴 했으나 이후 경기동부연합과의 조직적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한편 대학생봉사단은 성남 출신으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야학 등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일명 ‘대봉 그룹’이라 불렸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성남시에는 경원대<sup>8)</sup>와 신구전문대가 있었으나 거의 조직화되지 못했고 1979년에 설치 승인이 난 외대 용인캠퍼스도 1984년 가서야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성남에서 활동하는 대학생은 주로 서울 소재 대학의 학생들이었다(이해학 구술 2012/06/19). 대봉 그룹은 나중에 ‘한울’로 이름을 바꾸는데 이 역시 경기동부연합과는 관련이 없다.

언론에서 경기동부연합의 조직적 기원으로 본 터사랑청년회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단체는 1984년 재탄생한 성남시대학생연합회(성대련)으로 볼 수 있는데 1980년부터 활동하고 있던 같은 이름의 성대련이 성남 시학우회연합(성우연)과 합쳐져 생겨난 단체이다. 성대련은 1987년 성남

---

8) 1978년 경원학원으로 출발하여 1987년 종합대학으로 승격, 2012년 3월 가천대학교로 개칭.

시학우회연합(성학연)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1990년 터사랑청년회가 되었다.

1980년의 성대련이 결성된 이유는 ‘5월 광주’였다. 성대련 초기부터 1982년 초 입대 직전까지 활동했던 서울대 79학번 이수열은 “1980년 5월 휴교령으로 서울의 학교로 갈 수 없게 된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이다가 자연스럽게 단체가 결성됐다. 지역 봉사활동을 하면서 세미나를 통해 사회의식을 키워나가는 게 목적이었다. 광주 문제는 주로 내부에서 논의되었으며 직접 홍보 활동에 나서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기억했다(이수열 구술 2013/03/19). “이전까지 YMCA 등 종교단체의 보호막을 활용해 활동했던 것에 비하면 성대련은 새로운 형태”였고, 뒤로 가면서 광주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더욱 많은 학생들이 결합했다(박우형 구술 2012/11/03).

성남시는 학생들이 홍보에 나서기 전 매우 이른 시기부터 광주 학살의 여파가 일고 있었다. 1980년 6월 9일 서울의 신촌네거리에서 ‘광주시 민항쟁의 넋을 위로하며’라는 유서를 남기고 노동자 김종태가 분신했다. 1971년 전태일 이후 첫 번째 분신이었으며 5월 30일 서강대 학생 김의기의 투신에 이어 두 번째로 광주 학살에 항의한 자결이었다. 1958년 부산 출생인 김종태는 서울의 미아초등학교를 다니다 1970년 광주대단지로 오면서 중퇴하고 2년 뒤 성남 수진초등학교에 복학했다. 성남의 공장에서 일을 하며 1978년부터 이해학 목사가 있던 주민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김종태는 방위병으로 군에 입대한 이듬해인 1980년 분신했다(주민교회역사편찬위원회 2003, 169-181). 성남에서 자라난 노래운동가 백창우는 1987년 김종태 분신 7주기에 ‘그대, 산자여’라는 노래를 만들었고, ‘푸른영상’은 2002년 ‘김종태의 꿈’으로 그의 삶을 영화화했다.

성남시가 광주 학살에 유독 민감했던 것은 광주대단지와 관련이 있

다.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났을 때 전국에서 가장 먼저 병력이 배치된 곳이 성남시였다. 광주대단지 건설 목적의 하나가 서울의 도시민을 소개해 유사시 적의 은신처로 제공되는 것을 막는 데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었다(이해학 구술 2011/06/02).<sup>9)</sup> 더욱이 성남시는 현재까지도 ‘제2의 호남’으로 불릴 정도로 호남 인구가 많다. 전남 진도 출신으로 1969년 9월 광주대단지 시절부터 1997년 6월 재무국장으로 퇴임할 때까지 39년을 성남시 공무원으로 재직한 박봉준의 증언을 들어보자.

“철거민 이주할 때는 전라도 사람이 본적을 많이 숨기는 일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본적이 이적이 되지 않아서 호적 등본에는 다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그 때 전라도 사람이 60프로 됐습니다. 철거민 중에는(박봉준 구술 2012/08/16).”

1971년부터 1987년까지 인구 유입은 서울 48%, 경기 41%, 나머지 11%는 경남이다. 반면 인구 유출은 전남 23%, 전북 16%, 강원 21%, 충남 16%, 경북 14%, 충북 10%이다. 전남·전북이 각각 23%, 16% 유출된 데 반해 영남은 경북 14%만이 유출됐다(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이를 통해 영남인의 몇 배에 달하는 호남인이 성남에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성남 출신 대학생들이 지역에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일은 가족들에게 고향의 소식을 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광주대단지에서 비롯된 차별·배제와 호남인에 대한 차별·배제가 1980년 ‘5월 광주’를 통해 만난 것이다.

9) 1988년 5공특위 당시 이해찬 국회의원의 발언 내용 인용해 설명.

1960년대 중반 이후 저곡가 정책을 기본으로 한 산업화 정책은 농촌 경제를 몰락시키면서 농민들의 이촌향도(離村向都)를 촉진했고, 저임금의 노동집약적 산업화는 그들이 도시로 순탄하게 편입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저임금 탓에 도시 사람들 속에 섞여 살 만한 곳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천변이나 산동네에 무허가의 판잣집을 지어 살기 시작했다. 1967년부터 1970년 중반기까지 3년 6개월 동안 서울에는 140,598동의 판잣집이 세워졌다(김동춘 2011, 9) 광주대단지가 건설되기 시작한 1968년 서울시에는 총 75만여 가구 중 집 없는 시민이 30여만 가구였고 13만여 동이 판잣집과 불량주택이었다(경향신문 1968/03/28). 판잣집살이는 불편하기도 했지만 위험천만했다. 1968년 경향신문에는 총 25건의 판잣집 화재가 보도되었는데 이 중에는 한꺼번에 65동이 전소하거나(경향신문 1968/03/04, 8면), 무려 80동이 전소하는 일도 있었다(경향신문 1968/12/20, 3면). 생명을 앗아가는 일은 화재뿐만이 아니었다. 산사태로 목숨을 잃기도 했고(경향신문 1968/08/23, 3면), 트럭에 받아 집이 박살이 나면서 사람이 죽는 일도 있었다(경향신문 1968/12/23, 7면). 그러나 생활의 불편과 생명을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판잣집살이였지만 이마저도 순탄치 않았다. 1968년부터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기 시작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도시미관을 위해 용산역 인근 등 철도 연변의 판잣집부터 철거하라고 지시했다(손정목 2005). 농촌의 고향에서 서울로 쫓겨온 사람들은 다시 쫓겨나야 했다. 그들이 정착한 곳은 대개는 서울 외곽의 정착촌이었고 그중 가장 열악하고 거대한 정착촌이 바로 광주대단지였다. 그리고, 농촌에서 서울의 판잣집으로, 서울에서 다시 광주대단지로 쫓겨나야 했던 사람의 상당수가 호남 사람이었다.

저임금의 노동집약적 산업화에 의한 농촌에 대한 차별, 영남에 비해 호남에 대한 상대적인 차별, 무허가 판잣집에 거주하는 도시빈민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결과가 한 데로 모여진 것이 바로 광주대단지였다. 그리고 8·10 사건에 따른 또 한 번의 차별과 배제로 인해 탄생한 세대가 1980년 ‘5월 광주’를 만나면서 생겨난 조직이 성대련이다. 대학가에 퍼졌던 광주 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론을 감안하면 이후 성남시의 청년학생운동이 NL 쪽으로 기우는 것도 우연은 아니었다. 아래는 성대련 세미나팀장으로 활동하다 입대 후 1983년 12월 11일 자살한 한희철(서울대 79학번)<sup>10)</sup>이 서울대 가톨릭학생회 ‘날적이’에 남긴 글로 그의 이념적 경향을 알 수 있다.

“분명 민족(民族)은 살아있는 실체이다. … 그러나 이 한반도란 땅에는 이 민족에게 죄사슬을 채우고 노예로 만드는 또 다른 실체가 있었다. … 잘린 민족의 현실적 아픔을 망각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자들! 분단으로 인한 모든 현실로 인해 편해진 자들! 통일을 향한 싸움이 전제되지 않고는 우리는 성화(聖化)될 수 없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369-376).”

## 2) 기억의 승화: 차별과 배제의 기억에서 운동의 잠재력으로

성대련이 결성된 1980년부터 1983년 하반기까지는 학생운동이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시기였다. 변혁운동의 전망을 모색하면서 반제민족주의혁명, 반파쇼민주주의혁명, 민중해방혁명, 북한과의 통일적 혁명이 강조되었고,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개입 의혹은 자연스럽게 반미 자주

10) 2002년 6월 26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한씨의 자살을 공권력의 위법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83년 서울대생 한희철씨 의문사 인정」, 『동아일보』, 2002/06/26.

화투쟁으로 이어졌다. 1980년 광주미문화원 방화부터 1982년 부산미문화원 방화와 강원대 학생들의 성조기 소각 사건 등 일련의 반미자주화투쟁이 일어나 향후 자주화운동이 전면화, 대중화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조희연 2001, 246-250).

1982년까지 학생운동권 내 선도 투쟁에 그쳤던 반미자주화 투쟁은 1983년 12월 학원자율화조치 이후 점차 대중적인 기반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즈음 성대련도 질적 변화를 겪는다. 당시 각 대학에는 지역 학우회(또는 향우회)들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서울 소재 여러 대학의 성남시학우회들이 모여 연합체육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1984년 성남시학우회연합(성우연)이 결성됐다. 정권 차원에서 대학생들의 야학 활동을 탄압하기 시작했던 때인데<sup>11)</sup> 이 과정에서 성대련의 활동도 크게 위축되었다. 1984년 성우연은 성대련과 통합하는데 명칭은 성대련을 그대로 사용했다. 1984년의 성대련과 이전의 성대련은 조직화의 정도와 대표성 측면에서 크게 달랐다. 1980년 만들어진 성대련이 단순히 성남 출신 대학생들로만 구성되었다면 1984년의 성대련은 각 대학 학우회의 대표성을 확보한 조직이었다. 즉 각 대학 학우회를 통해 성남시 출신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결합한 것이다. 조직의 성격이 달라진 만큼 활동도 크게 달라졌다. 이전까지 학술문화활동에 치중했다면 이때부터는 가두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각 대학의 학우회가 모였기 때문에 상당한 인원 동원이 가능한 구조였다(박우형 구술 2012/11/03).

1984년부터 현재의 경기동부연합 관련 인맥이 재탄생한 성대련을

11) 당시 정권은 야학 활동을 좌경 용공 학생들의 혁명 활동으로 규정하고 야학 학생과 교사들을 탄압했고 1981년 동학·야학회 사건으로 노동자들이 해고되기도 했다. 야학 탄압 사건으로는 1983년 사회운동 성향의 대학생 야학 교사들이 강제 연행된 야학연합회 사건 등이 있다. <두산백과> ‘야학(夜學).’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당시 회장은 서울대 성남시학우회 회장으로 있던 박우형(서울대 83학번)이었는데 1985년 4월 12일 상대원시장 앞 연합시위를 주동한 책임으로 수배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 성대련을 이끌어나갔다. 비례대표 사태 관련한 언론보도가 외대 용인에 머물렀던 것은 당직이 없던 박우형을 취재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우형은 1996년 터사랑청년회 회장을 맡았고 민노당 수정구 지구당 초대 위원장을 지냈으며 같은 해 6·8 보궐선거에는 경기도의원으로서 출마해 무려 25.6%를 득표했다. 박우형이 당직을 갖지 않게 된 것은 2005년 성남시가 추진한 공원로확장공사의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다. 이 일과 관련해 그는 2009년 5월 징역8월에 집유2년을 받으면서 피선거권을 잃었다.

청소년 시절 박우형에게 성남시는 “깡패도시, 사고 치러나 가는 도시, 못사는 동네, 달동네, 유흥업소, 사회에서의 2류 인생들이 모여 있는 도시”였다. “초등학교 말부터 그런 느낌이 있었고, 중학교 때는 다들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친구들과끼리 모여 얘기해도 그런 얘기를 주로 했”다. 그러나 청년기 박우형에게 성남시는 ‘혁명의 도시’였다. “광주대단지인 사람에다 도시를 맞춘 게 아니라 사람들을 갖다버릴 곳으로 산비탈을 깎아놓고 쓰레기처럼 갖다버린 곳”이었다. 그러나 “71년 사건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변혁과 혁명의 잠재력” 때문에 “예전에 있던 사람들은 성남을 혁명의 도시라 했다. … 그 당시 운동한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을 했고, 실제로 그런 것이 많은 영향을 미쳐 사람들이 운동을 하게 되었다.” 박우형의 세대에 와서 광주대단지부터 성남시에 이르는 차별과 배제의 기억은 부정이 아닌 긍정의 형식으로 내면화되어 운동 역량으로 동원된 것이다. 박우형은 4·11 총선 이후 이석기 국회의원의 특별보좌관을 했으며, 이석기 의원과는 성일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 박우형은 성남시의 고교

평준화 첫 세대로 1980년 성일고에 입학했으며 3년 선배인 이석기를 대학 입학 즈음에 알게 되었다(박우형 구술 2012/11/03). 이들은 성남시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기억을 공유한 사람들이었다. 이렇듯 경기동부연합의 기원이 성남시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기억을 공유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봤을 때, 이석기와 경기동부연합의 관계도 더욱 명확해진다. 언론에서는 이석기의 출신 대학에 주목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석기의 출신 지역이다. 1980년 성남 성일고등학교를 나온 이석기는 2년 뒤 82학번으로 외대 용인에 입학했다.

한편 이 시기 성남에서는 김종태, 한희철에 이은 또 한 명의 ‘열사’가 탄생했다. 1985년 9월 17일 경원대 2년생 송광영이 교내 집회 중 옥내에서 미리 온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운동장으로 뛰어나오며 “학원안정법 반대”와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외친 뒤 분신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257-262). 1986년 4월 대학생 분신으로 주목받았던 서울대생 김세진·이재호의 분신보다 앞선 일이었다.

### 3) 기억의 계승: 1987년 6월항쟁과 용성총련의 유입

성대련이 성남시학우회연합(성학연)으로 전화한 1987년 6월의 성남시는 어느 도시보다 뜨거웠다. 그때까지 성남시에는 8·10 사건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1973년 설립된 주민교회와, 가톨릭계의 노동자쉼터 ‘만남의 집’(소피아 수녀, 1978년 설립), 산자교회(김해성 목사, 1986년 설립) 등이 운동권의 피난처이자 산실 역할을 하고 있었고 세 개의 공단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과 성대련 중심의 학생운동, 빈민운동이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성남시의 6월항쟁은 성남지역 민주사회발전연구회(1985년 창립)가

확대 개편해 1987년 3월 결성된 성남민주화연합을 중심으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성남지역본부가 결성되고, 여기에 전대협 산하 용성총련 학생들이 결합하여 진행되었다. 당시 성남시 시위를 주도한 주요 대학 총학생회장은 허성욱(외대 용인캠퍼스), 김태년(경희대 수원국제캠퍼스), 이승호(경원대) 등이었다. 6월항쟁 첫 날인 6월 10일 시민대회에는 3만여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했고, 17일부터 20일까지의 격렬한 시위에 이어, 26일 평화대행진에도 1만여 시민들이 참여했다. 한편 이 시기에 성대련을 중심으로 성남의 경원대, 신구대와 1980년대 초·중반 용인 지역에 자리를 잡은 외대와 경희대를 포함하는 캠퍼스 연락체계가 만들어졌다. 서울 소재 대학의 학우회를 기반으로 한 지역학생조직이 지역 연고 캠퍼스를 단위로 하는 학생운동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 6월항쟁을 거치면서 확고히 자리잡는다(성남6월항쟁2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2007, 18-33).

성대련은 6월항쟁 기간 주로 국본에 결합해 활동했으며, 박우형은 정책팀 쪽의 고문을 맡았다(박우형 구술 2012/11/03). 1985년 박우형을 포함한 임원진이 구속되거나 수배되는 사태를 맞아 일시 약화되었다가 1987년 6월 26일 학우회 연합의 성격을 강화해 성남시학우회연합(성학연)으로 개칭하여 경원대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이때부터 학우회 단위에서 개별 동아리로 활동 단위가 옮겨지게 되는데 1989년에는 성남 지역의 직장인, 즉 대학 안 간 청년들까지 포괄하면서 1989년 터사랑청년학우회로 바뀌었고, 1990년 현재의 이름인 터사랑청년회(이하 터사랑)로 개칭했다(이상훈 구술 2012/07/06).

6월항쟁 이후 대중운동이 발전하면서 전국적으로 대중적인 청년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이 활동가 조직에서 대중단체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1988년 9월 나라사랑청년회를 필두로 부산, 광주, 대전 등에서 청년단체들이 결성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청년단체들의 연대가 모색되었다. 성남에서는 1988년 1월 성남청년회가 결성되었다. 성학연이 터사랑청년학우회로 명칭을 바꾸기 1년 전의 일이다. 터사랑이 지역 출신 청년들의 모임이라면 성남청년회는 두 가지 흐름이 합쳐져 만들어졌다. 하나는 평화민주당 외곽 조직인 평화민주통일연구회(평민연) 쪽이고 다른 하나는 터사랑과 같은 지역 청년들의 결합이었는데 이 때문에 성남청년회는 터사랑에 비해 민주당 정서가 강했다. 터사랑은 수정구를, 성남청년회는 중원구를 기반으로 활동했으며, 그밖의 청년단체로는 이해학 목사의 주민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성남EYC가 있었다(정형주 구술 2013/02/27).

광주대단지 기억을 공유하는 성남 출신들의 모임이 성대련과 이후 터사랑 및 성남청년회였다면 6월항쟁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억을 계승시키면서 청년회 조직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6월항쟁을 전후해 성남시 인근 대학의 학생들은 재학 시에는 노학연대투쟁에 참여하면서 성남시와 관계를 맺었다가 졸업 후에는 성남공단으로 취업하거나 청년회에 참여해 활동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태년<sup>12)</sup>과 정형주를 들 수 있다. 김태년은 터사랑청년회에 결합했으며, 임수경 평양방북 건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나온 정형주도 “노동현장으로 가려던 당초 계획을 접고” 1989년 중순 성남청년회로 결합했다. 김태년은 1995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탈퇴했다. 이와 함께 성학연 인맥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유입되었는데 4·11 총선에서 정형주 대신 중원구에 출마해 당선된 김미희 국회의원이 대표적이다. 서울대 84학번인 김미희는 졸업 후 터사랑청년회에 결합해 활동했다. 언론보도에는 용성총련을 경기동부연합의 뿌리로 지목했지만 용성총련을 비롯해 외지 학생들이 성남시를 발판으로 활

12) 현 민주통합당 성남시 수정구 국회의원.

동하게 된 것은 1987년 6월항쟁을 거치면서 기존에 이미 활동하고 있던 청년회에 결합하면서부터였던 것이다.

정형주가 졸업 후 성남행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당시 외대 용인에는 서울 학생들이 많았는데 서울에서 용인까지 성남을 거쳐 등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과 친숙해졌다. 노학연대활동을 성남서 했던 정형주는 서울 이문동 뚝방길의 무허가 판잣집에 살았던 경험 때문에 성남시가 더욱 친숙하게 느껴졌다.

“대학 때 윤홍길의 ‘아홉 켄레 구두로 남은 사내’<sup>13)</sup>를 보면서 성남에 더 많은 애착을 갖게 됐어요. 주변에도 많은 사람이 봤지요. 지역 와서는 광주대단지 경험했던 사람들 만나 (아이 삶아 먹은 애기도)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고 … 그때를 거쳤던 사람들의 생각을 제가 느껴요. (그러나) 그걸 겪은 사람들과 저같이 뒤에 온 사람은 정서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지요. 재개발 문제를 바라보는 문제도 그렇고 …(정형주 구술 2013/02/27)”

1988년 대학 재학 시절 야학 활동차 성남에 왔던 김미희는 1992년 졸업 후 성남에 정착하였다. 정형주가 성남의 ‘서민성’에 이끌렸다면 김미희는 ‘운동성’에 매력을 느꼈다. 대단지 사건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집단적으로 항거 … 도시의 운명 자체를 시민들이 바꿔낸 것”이라고 평가하는 김미희는 광주대단지 초기 이주해온 ‘진짜’ 성남 사람인 백승우(현 통진당 사무부총장)를 만나 결혼했다.

청년회뿐만 아니라 성남의 운동단체들은 광주대단지 기억을 공유하면서 성장했다. 특히 터사랑과 성남청년회는 동아리활동을 통해 역사교

---

13) 윤홍길은 1973년 성남시 소재 송신여자중학교에 국어교사로 부임했으나 곧 사표를 내고 실직 기간 동안 성남시 단대리 전번부락의 단간 셋방에서 생활했다. 이때의 경험이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로 형상화되었다(정희정 2004, 17).

실이나 지역 탐방 활동을 일상적으로 전개하며 대단지 기억을 공유해 나갔고 1991년 8·10 사건 20주년을 맞아서는 대단지 시절을 경험한 주민들 대상으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벌여 자료집으로 내기도 했다. 대단지 기억은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공유되면서 기억의 두 주체, 즉 “원초적 사건의 직접적 희생자 집단과, 원초적 사건이 발생한 계기와 의의에 동의하고 이를 계승하는 데 목적을 둔 집단(정호기 2004, 231)”이 완성되어가기 시작했다.

#### 4) 또 하나의 기억: 경기동부연합의 결성과 자주·민주·통일 운동

1991년 성남시의 청년단체들은 성남청년단체연합을 결성했다. 전국연합 산하 성남연합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청년 부문으로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1991년 출범한 전국연합은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이 ‘합법정당 논쟁’으로 이부영을 비롯한 일부 간부진이 사퇴하고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으로 조직역량이 약화되자, 침체되었던 재야운동세력들이 다시 모여 1991년 출범한 단체이다. 해방 이후 최대의 연합조직이라 할 수 있는 전국연합은 이전의 민통련이나 전민련과는 달리 대중조직이 주도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이창언 2011, 24).

전국연합은 1994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범민련) 문제로 극심한 내분을 겪게 되는데 일명 ‘새통체’ 논쟁으로도 불린다.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가 화해·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일로 나아가는 대북정책을 표방하는 가운데 문익환 의장은 범민련의 해체와 ‘새로운 통일운동단체’ 결성을 제안했다. 1993년 12월 북한의 공개적인 반대 후 한총련을 중심으로 하는 범민련 사수론과 민족회의 우호론이 맞서게 되지만, 새통체 건설은 1994년 7월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민족회의)의 결성으로 결실을 맺

었다. 당시 성남연합은 새통체 지지는 아니었지만 통일운동의 대중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민족회의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국연합의 직접적 분화는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세력화에 대한 입장차에서 왔다. 1997년 6월 14일 전국연합 임시대의원 대회에서는 ‘우리’ 후보 방침을 결정하였으나 전국연합의 또 다른 자주계열(한총련 주류, 범민련 노선을 지지하는 지역연합, 전선강화론의 입장에 선 자주파)은 민주대연합에 입각한 대선 방침을 고수하면서 대의원 대회 방침을 거부하고 비판적 지지론으로 선회했다. 정치세력화에 반대한 지역연합은 광주전남연합, 서울연합, 대구경북, 인천연합 등이다. 성남연합은 노동운동 기반이 강한 울산연합과 함께 정당운동에 가장 빨리 결합했고 이것은 나중에 민노당에도 가장 먼저 착근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이후 범민련 초기 주도자인 문익환, 이창복, 조성우 등은 전국연합을 이탈해 정치권으로 이동했고, 민청협외의 후신으로 정치세력화를 주장하며 전국연합 내 담론을 선도했던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한청협)는 대선 패배 후 이탈하여 한국청년연합회(KYC)를 설립했다. 전국연합 내 상층 지도부는 정치권으로, 하층은 시민운동으로 가면서 변혁운동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이다 (홍진표·이광백·신주현 2010, 21-24; 이창언 2011, 41; 정영태 2012, 60-77).

이 시기 전국연합 중앙의 균열과 맥을 같이 해 성남연합에서도 분열이 일어났다. 1992년 총선 때 성남연합은 민주당 후보인 이윤수와 조성준을 각각 수정구와 중원구의 범민주단일후보로 지원하여 당선에 기여했다. 1993년에는 이상락을 성남시의원 보궐선거에 시민단체 독자후보로 지원해 당선됐다. 그런데 1995년부터는 성남연합 내 입장이 갈리기 시작했다. 이상락 성남시의원이 당선 1년 만에 제명당하고 1995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데 대해 민주당 입당과 무소속을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이

일로 김태년과 다수 회원들이 터사랑에서 탈퇴했고, 빈민 부문, 종교(기독교) 부문도 성남연합에서 탈퇴했다. 터사랑과 성남청년회에서 탈퇴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성남청년광장을 만들어 활동했다. 그러다가 KYC에 결합하여 성남KYC를 설립했다(이상훈 구술 2012/07/06). 전국연합이 “민족해방운동 계열의 반계통일전선 건설 투쟁의 산물이자 추동엔진(이창언 2011, 6)”이라고 할 수 있었던 만큼 민주당 선호의 시민운동 세력이 떨어져나간 이후부터 성남연합은 NL계에서도 좀 더 급진적인 경향의 인물들로 채워지게 되었다.

문민정부의 등장은 통일운동권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성남시 청년회의 활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운동가 중심의 활동을 대중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터사랑을 시작으로, 성남청년회, 그리고 1993년에 생겨난 분당청년회에서 청년학교를 개설했다. 기존에 동아리 중심으로 운영하던 분과들을 대중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문학교실, 영화교실, 풍물교실, 노래교실, 역사교실, 등산교실 등을 운영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1996년에는 세 단체에서 별개로 운영하던 것을 하나로 합쳐 성남청년대학을 설립했다. 성남청년대학은 2009년 4월 해체될 때까지 방과후 무료공부방인 푸른학교(1998년 개설)와 함께 민노당 성남시당, 즉 경기동부연합의 가장 큰 조직 기반이 되었다(이상훈 구술 2012/07/06). 비례대표 사태 당시 통진당 대변인이었던 우위영(1993년 터사랑 가입)은 “청년학교와 성남청년대학을 통해 한 해 수백에서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난 것이 조직 자산이 되어 이후 민노당 창당과 원내진출의 기반이 되었다(민중의소리 2010/02/19)”고 평가했다.

공고화된 조직을 기반으로 1996년부터는 소위 경기동부연합의 ‘전설’을 만들기 시작했다. 북한에 수재가 났을 때 당시 성남연합에서 가장 먼저 북한동포돕기운동을 전개했다. 회원 50여 명이 북한에 쌀보내기운

동을 전개, 3개월 동안 무려 1만 5천 가구를 방문해 5천5백 가구로부터 220가마의 쌀을 모았다(민중의소리 2003/11/12). 제도권에서 방기하고 있는 통일에의 꿈을 향한 그들만의 방식이자 의지의 표출이었다. 이듬해인 1997년에는 북녘동포돕기 범국민운동이 벌어졌는데 이즈음 성남연합은 용인·광주·하남·이천·여주를 포괄하여 경기동부연합으로 전환했다. 당시 성금 출연자 전체 명단이 한겨레신문에 게재되었는데 총 5회에 걸친 전국연합 게재분 중 3회가 경기동부연합 명단이었고 총 597명이 이름을 올렸다(한겨레신문 1997/05/06; 05/07; 07/29; 07/30; 07/31; 10/01).<sup>14)</sup> 1998년 IMF 이후에는 실업자대책위원회<sup>15)</sup>를 구성해 쌀모으기 운동 때와 마찬가지로 호별 방문을 통해 실태조사를 하고 운영비를 마련했다. 경기동부연합의 이 같은 노력은 향후 선거에서 높은 득표율의 기반이 되었다.

경기동부연합의 전설적 활동은 공동체적 생활에 의해 밑받침되었다. “합숙하면서 새벽에 함께 기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또한 개인 소유가 없었다. 노동을 통해 돈을 벌어서면 공동체에 내놓았다(최홍재 인터뷰, 송홍근 2012, 42).” 생활을 위해서는 신문배달, 우유배달, 세차를 주로 했다. 밤늦게까지 퇴근하고 온 회원들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새벽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다(정형주 구술 2013/02/27).

“6명~7명 정도의 핵심간부들은 상근활동을 했기 때문에 새벽에 신문 배달이나 우유배달을 해 생계비와 활동비를 충당했습니다. 대충 하루 일

14) “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 범국민운동 명단.” 7월 29일자에는 “민족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으로 모아진 경기동부연합 참가자 명단을 신습니다. 분량이 많아 세 번에 나누어 신습니다”라고 나와 있다.

15) 고용 안정과 실업자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동부대책위원회.

과는 새벽 3시~4시 사이에 시작되었고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최소한 1년에 절반은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하루에 네 시간 이상을 자는 것은 양심에 찢리는 일이었습니다(우위영 인터뷰, 민중의소리 2010/02/19).”

자주·민주·통일 운동을 함께하는 실천가의 삶에 사적 욕망은 허용될 수 없었다. 경기동부연합은 운동 기풍(氣風)이 굉장히 강해 마치 묵가(墨家) 집단과도 같았다(최홍재 인터뷰, 송홍근 2012, 43). PD에 비해 NL이 집단문화가 강하고 규율도 엄격하지만 경기동부연합은 다른 지역에 비해 바가 아니었다. 거의 군대를 방불케 하는 집단성과 일체감은 광주 민중항쟁의 기억으로 단련된 남총련(전남총학생회연합)에 견줄 만했다. 경기동부연합은 개인의 삶을 철저히 배제한 공동체적 삶 속에서 자주·민주·통일의 꿈과 함께 그들이 공유하는 기억의 내용과 시간을 더욱 강화시켜 나간 것이다.

한편 1989년부터 범민족대회 개최 등으로 통일운동이 무르익어가고 전국연합의 결성으로 NL계가 총결집한 1990년 초·중반은 많은 학생 열사가 탄생하는 시기였다. 1991년 명지대 강경대 학생 타살 이후의 분신 정국은 13명의 분신자를 포함해 모두 25명의 열사를 낳았다. 이 중 성남 관련 인물은 4명으로 경원대생 천세용이 분신했고, 유서대필사건과 관련된 김기철도 성남민청련 활동 중 분신했다. 그리고 외대 용인의 남현진이 군에서 의문사했고 노동자 윤용하가 분신했다. 1992년부터는 학생운동 관련 대학생 자살자 수가 1995년 1명, 1996년 5명, 1997년 1명으로, 7명 중 4명이 용성총련 소속이다.<sup>16)</sup>

16) 장현구(경원대생, 1995.12.14 분신), 진철원(경원대생, 1996.4.6 분신), 이상희(경원대생,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자살자 수를 지역 내 운동 분위기와 곧장 연관시키기는 어렵다. 다만 “투쟁의 빈도가 높은 것과 상관있을 수도 있(정형주 구술 2013/02/27)”고, 열악한 환경에서 비롯된 심리적 열패감이 극단적 수단을 택하게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추모제 등 기억의 의례는 집단의 일체감과 유대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뒤르켐의 말처럼 “한 장소에 모인다는 사실 자체”에서 ‘집합적 열광’이 연출되며, 슬픔 속에서의 소통은 공동체의 사회적 생명력을 높이기 때문이다(김종엽 1998, 297-301). 성남시에서는 1980년 김종태의 분신을 시작으로 모두 17명이 자결하거나 의문사했다.<sup>17)</sup> 매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추모제는 경기동부연합의 집단성과 일체감을 더욱 강화시켰을 것이다.

#### 4. 기억의 고착과 경기동부연합의 고립

NL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자주파의 노선과 조직 문화는 2008년 민노당 분당 사태를 통해 ‘중북주의’<sup>18)</sup>와 패권주의로 집약되었다(파벌 2012, 215-248). 자주파의 세 파벌인 울산, 인천, 경기동부연합은 중북주의와 패권주의에서 공통적으로 평등파의 비판을 받았지만 이념적·조

---

1996.9.18 자결), 한상근(용인대생, 1997.2.1 분신).

17)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www.yolsa.org)에는 2009년까지 308명의 열사·희생자 명단이 올라와 있고 분신·투신 등 자결한 사람은 156명이다. 이 중 성남시 관련 인물은 17명(자결 12, 기타 5)이다.

18) ‘중북주의’는 2008년 민노당 분당시 평등파가 사용한 용어로 자주파 내부에서는 ‘중북’이 아니라 ‘연북’이라 한다.

직적 폐쇄성에서 차이가 있다. 경기동부연합은 당권과의 핵심이었던 데에다 정식 당직을 가지지 않은 이너서클에서 집단의 정치적 행동을 결정하고 명령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더욱 문제시되었고(판지일보 2012/03/21), 분당 사태의 계기가 되었던 일심회 사건과의 관련성도 좀 더 밀접했다(동아일보 2012/05/19). 울산연합의 경우에는 정도 차는 있었을지라도 1997년 정치세력화 논쟁에서부터 최근까지 경기동부연합과 거의 유사한 노선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는데 2012년 비례대표 사태에서는 다른 선택을 했다. 비례대표 사태 당시 경기동부연합이 비타협적 선택을 했다면 울산연합은 정치적 판단을 중시한 것이다. 그리고 경기동부연합의 선택은 결국 고립화의 길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PD계의 주도로 민노당이 만들어졌을 때 경기동부연합은 울산연합과 함께 전국연합에서 가장 먼저 창당 준비과정에서부터 개인 자격으로 입당하기 시작했다(정영태 2012, 65). 전국연합 전체 차원에서는 2001년 9월에서야 합류를 결정했고 2002년부터 전국연합 소속의 전농, 한총련, 그리고 민노총 국민과 등이 민노당에 조직적으로 입당했다(홍진표 외 2010, 173). 1990년대 중반 전국연합이 분열할 때에도 경기동부연합은 통일운동 대중화, 지역예의 투신, 정치세력화 측면에서 다른 파벌보다 앞서나가며 이후 당권 장악의 기초를 닦았다. 그러나 이미 그때부터 다른 파벌과 구별되는 강한 독자성을 보였으며, 자파 중심적 성격 또한 두드러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997년 성남연합에서 경기동부연합으로 전환할 무렵 단체명을 놓고 시비가 있었다. 주사파에서 뉴라이트 사무총장으로 변신한 최홍재에 따르면 “원래는 경기북부연합, 경기남부연합만 있었다. 김미희, 정형주가 경기동부연합을 조직하겠다고 나섰다. 조직부에서 ‘옳지 않다’, ‘승인 안 해주겠다’고 했고, ‘왜 안 해주느냐’는 실랑이가 있었지만 결국 경기동부연합으로 발족했다(송홍근 2012, 42).”<sup>19)</sup> 진보

운동 정치세력화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는 1997년 국민승리21 시절부터 패권주의 역시 강하게 나타났다. 성남시에서 진정추(진보정당추진위원회)와 경기동부연합이 동시에 지구당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동부연합 측에서 직인을 절취, 선관위에 일방적으로 등록하는 일이 발생했다(레디앙 2012/05/27).<sup>20)</sup> 당비 대납도 가장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4·11 총선에 이르러서 경기동부연합의 이 같은 패권주의는 자파 이기주의적 양상으로까지 치달았다. 야권 통합을 주도하면서 통일전선론<sup>21)</sup>의 실제화보다 헤게모니 장악에 우선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계급노선을 견지하지 않은 채 중간세력인 참여계와의 통합에 골몰했기 때문이었다. 또 민주통합당과의 협상 과정에서는 자파 위주의 지분 확보로도 눈총을 받았다.<sup>22)</sup> 이전의 선거와는 달리 의석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나온 무리수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념이 다를 뿐 아니라 기존 ‘관행’에도 익숙치 않았던 참여계를 중심으로 비례대표 선거

19) 이에 대해 정형주는 “전국연합은 지역의 자생적인 단체들의 연합체였기 때문에 성남연합이 경기남부연합 밑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었고”, “처음부터 동부나 남부나 북부나 구분하지 않았고 성남은 성남연합에서 시작을 해 지역 역량이 취약했던 광주·하남·용인 등 경기동부 지역의 민주진보 성향의 단체들이 모여 경기동부연합”을 만든 것이라고 한다(정형주 구술 2012/02/27).

20) 이에 대해 정형주는 절취가 아니라 “책임자가 반대하는데 사무처장이 직인을 내줬다”고 한다(정형주 구술 2013/02/27).

21) 북한의 통일전선론은 레닌의 『What Is to be done』에 기원을 둔 것으로 조직상으로 계급노선을 견지하면서 군중노선을 결합하고, 전술상 원칙으로는 하층통일전선을 기본으로 한 상층 통전의 유기적 결합, 낮은 형태에서 점차 높은 형태의 공동투쟁, 부분적 연합에서 전면적 연합으로의 발전, 통일전선체제 내에서의 중간층·민족자본가들과의 단결 등을 내용으로 한다. 통일전선의 기본강령으로는 자주·민주·통일을 내세운다(조진경 1988, 303-323).

22) 4·11 총선 전후 인터넷에 떠돈 문건(민주통합당 내부 문서로 추정)에는 19개 선거구 협상 결과 경기동부연합 7개, 참여당 6개, 울산연합 3개, 좌파 2개, 인천연합 1개로 되어 있다. <http://okcbs.blog.me/130134668625>, <http://regulartime.tistory.com/41> 등 출처 다수.

의 전모가 폭로됐고 경기동부연합은 안팎으로 고립되는 상황에 처했다.

운동의 퇴행과 조직의 고립은 기억의 고착과 관련이 있다.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스스로를 자민통 대오라 지칭한다.<sup>23)</sup> 1990년 자민통 사건, 1996년 한총련 이적단체화 등으로 위축된 자민통은 스스로를 보전키 위해서라도 교조화·지하화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당연히 기억의 고착을 초래하였다. 반민주와 반민족이 등치되던 시절, 자민통 운동은 민주화운동 전체를 견인하였다. 그러나 스스로의 손으로 이뤄낸 1987년 6월항쟁의 성과를 축소하고 1990년대 중반의 경제위기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실상을 외면하는 순간 그들은 과거의 기억에 고착될 수밖에 없었다. 기억이 고착된 그들에게 남한 정부는 여전히 반민주·반민족의 원흉이자 미제의 괴뢰였고 북한은 통일조국의 표상이었다. 한편 정보화시대 지식대중의 출현을 직시하지 못한 채 대중을 지도 및 포섭 대상으로 간주해온 행태는 그들의 기억을 더욱 과거에만 머물게 했을 수 있다. 조직의 고립과 이념의 교조화가 자주파 일반에 기억의 고착을 불러일으켰다면 경기동부연합은 여기에 더해 이너서클을 중심으로 한 조직 운영의 폐쇄성과 추모의례가 결합된 강력한 집단기억과 연대의식이 기억의 고착을 더욱 강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기억의 고착은 달리 말하면 시간의 현재화 현상이다. 경기동부연합은 집단기억을 통해 스스로를 단련하고 강화했지만 그러한 집단기억에는 함정이 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가 분리되어 과거와 현재 사이의 차이점을 인식하지만 기억에는 그러한 기능이 없다. 역사가 없이 반복적이고 무시간적인 기억만이 존재하는 유대 종족에서처럼 기억에서는 과거와 현

23) 자민통은 자주·민주·통일 운동 일반을 지칭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NL계 파벌(자주민주통일 운동그룹)의 이름이다. 통합진보당 당원계시판에는 비례대표 사태 직후 자신들을 ‘자민통’ 또는 ‘자민통 대오’라 표현한 글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재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나 단절은 사라지고 과거가 곧바로 현재화되는 것이다(안병직 2002, 186). 경기동부연합의 기억의 현재화 현상은 그들의 시원적 기억이라 할 수 있는 광주대단지 기억의 연장선상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성남시는 구시가지인 수정구, 중원구 총 72,384세대를 대상으로 3단계에 걸쳐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중 2단계 사업은 순환이주방식으로 추진해 3,607세대를 판교 순환용 주택에 우선 입주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이익이 없어진 LH공사가 사업 자체에서 손을 떼려는 게 이유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 준공된 판교 백현 3·4단지 3,696세대가 현재까지 3년간 공가로 방치되어 있다(정형주·박우형 2012). 그런데 성남시가 추진하던 2단계 재개발사업의 중단은 “국가가 광주대단지에 이어 두 번째 우리를 버리는 일(박우형 구술 2012/11/03)”이었다. 광주대단지 시절 서울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지금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자식들이 또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정형주 구술 2013/02/27)”이다. ‘산모가 아기 삶아 먹은’ 공포를 체험한 사람들의 눈에 사업 중단 사태는 단순히 시공사의 이기주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다시 그들을 버린 주체는 대한민국이었고, 지켜야 할 것은 아파트 한 칸이 아니라 그들의 목숨이었다. 40년 동안 박탈된 가치에 대한 보상이 또다시 좌절하게 되자 그들은 광주대단지 시절의 공포와 분노를 다시 불러낸 것이다. 40년간 이어져온 차별과 배제의 기억이 20여 년 전 시간에 멈춘 자민통 운동과 만나 탄생한 그들은 비전향장기수에 비교할 만하다. 수십년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며 북으로의 환송을 기다리는 소년빨치산처럼 그들의 시선은 수십년 전 그 순간에 멈추어져 있다.

경기동부연합의 패권주의와 자파중심주의는 기억의 또 다른 함정과

도 관련이 있다. 집단의 밋에 걸린 것이다. 집단기억은 집단 내 지속성, 연속성, 동일성의 의식을 배양하면서 배타성을 강화시킨다. 개인이 가진 기억의 편차조차 평준화시켜 ‘전통’으로 통합시켜 버리기도 한다. 집단 정체성에 의해 구조화되는 기억은 당파적일 수밖에 없다. 집단 정체성의 핵심 메커니즘으로서의 기억은 사회의 권력구조에서 비롯되는 집단의 당파성을 대표한다. 그리하여 기억은 집단의 이익과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안병직 2002, 179). 한때 운동 역량으로 동원되었던 집단기억은 기억의 고착과 함께 집단의 밋으로 그들을 사로잡아 고립시키고 운동을 퇴행하게 만든 것이다.

경기동부연합에게 있어 고착된 기억과 집단의 밋은 2012년 비례대표 사태에 와서 패권주의와는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는 자기보전의식의 극대화를 가져왔다.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 자신을 규정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자기 아닌 ‘나머지 모두’를 부정했고 또 한편으로는 고립을 자초했다. 빈곤과 죽음의 공포로 봉기에 나섰던 광주대단지 주민들, 그리고 ‘악의 축’으로 고립된 북조선과 자신들을 동일시하면서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오랜 동지였던 울산연합마저 등을 돌렸다. 결국 비례대표 사태 이후 남은 동지는 광주전남연합과 서울연합의 일부뿐이었다. 민노당 정파 갈등의 기원과 종말을 다룬 책 『파벌』은 민노당 파벌의 이유로 이념과 노선 외에 조직 문화를 들고 있다(정영태 2012, 83). 이에 따르면 비례대표 사태에서 광주전남연합과 서울연합 중 고려대 출신 다수가 경기동부연합과 행보를 같이 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용성총련과 남총련, 그리고 고려대는 집단성과 일체감 등에서 매우 유사한 조직 문화를 갖고 있으며 주사와 세력이 가장 늦게까지 맹위를 떨친 곳이다.

비례대표 사태에서 경기동부연합의 행동 방식은 마치 서발턴의 그것과도 같았다. 라나지트 구하가 서발턴의 속성으로 든 부정성, 연대성,

폭력적 양상, 영토성이 똑같이 드러났으며, 스스로도 유대인, 이단자, 마녀, 불가촉집단 등을 자처하며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김인성 외 2012). 타자에 대한 부정에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서발턴처럼 그들은 ‘나머지 모두’로부터 자신들을 구분하면서 ‘국민의 눈높이’보다 ‘당원의 눈높이’를 강조했으며 ‘나머지 모두’의 부정한 억압에 대항하기 위해 공개적이고 ‘공적’인 폭력으로 맞섰다. 연대를 이탈하는 즉시 적으로 간주되었고 연대 안에 남아 있는 한 끝까지 보호해야 할 ‘우리’가 되었다. 동지는 ‘당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으며 그러한 당원을 포함하고 모욕 줄 권한은 진상조사위원회는 물론 국민에게도 없었다. 그리고 인도 농민 봉기의 서발턴처럼 그들은 공통 이념(혈통)에의 소속감뿐 아니라 공통 거주지에서의 소속감으로 뭉쳐 있었다(임미리 2013).

한국 현대사의 서발턴을 다룬 책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에서 김원은 ‘스스로 말할 수 없는’ 비가시적 존재로 광주대단지 철거민, 파독 간호사와 광부, 탄광 노동자, 도시하층민 등과 함께 박현채를 들었다. 저자가 실천적 지식인 박현채를 유령이라 부른 까닭은 소년 빨치산 경험에서 비롯된 박현채의 ‘자기검열’ 의식 때문이다. 지식인에게 ‘자기검열’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 자’가 되거나 ‘침묵하는 자’ 혹은 표현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다(김 원 2011, 228-263). 박현채가 자기검열의 족쇄를 찬 박정희시대의 유령이었듯이 그들도 스스로를 검열했다. “당계<sup>24)</sup>에 글을 쓸 때, 말을 할 때, 생각할 때 … ‘나는 당권파는 아니지만’, ‘나는 중북이 아니지만’, ‘나는 평범한 당원이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 MB정부에서 사람들은 자기검열을 시작했다. 나의 말이 때로는 나를 옥죄는 사슬이 된다는 것. 나의 말로 나는 어떤 공권력의 피해당사자가

---

24) 당원계시판.

될 수 있다는 것. 그 불이익이 두려워 말을 안 하고 말을 가려서 하고 생각을 한정 짓는다 ... 모든 기준을 당권파와 비당권파, 경기동부와 그것이 아닌 집단 ... 이런 시각들이 때로는 우리의 시각과 논의를 한정짓고 결국은 마녀사냥이 된다(김인성 외 2012, 330).”<sup>25)</sup> ‘국민주의’의 가치 체계가 자신들에게 ‘중복’의 꼬리표를 붙이면서 ‘자기검열’로 스스로를 압박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게 된 존재가 바로 자신들이라는 것이다.

비례대표 사태에서 경기동부연합은 〈민중의 소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언론으로부터 비례대표 경선뿐 아니라 그간의 모든 역사가 부정당 하는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사태의 비화와 여론에 의한 일방적인 매도 또한 자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직화·세력화를 위해 집단의 보존과 강화에 골몰한 시간 동안 그들은 외부의 가치와 시선에는 무뎠 대로 무디어져 버린 것이다. 훼손된 명예와 매도된 존재에 대한 분노로 ‘분신’<sup>26)</sup>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할 정도가 되었지만 세련되게 변명하고 항의할 방법을 알지 못했다.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에 따르면 서발틴은 “스스로를 말할 수 없는 사람”, 설령 말하더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타자의 시점과 언어에 의해 지워져버리고 마는 존재이다. 그들은 어느새 부정을 통해서만 자기를 인식하고, 폭력으로서만 자기를 드러내는 서발틴이 된 것이다. 최초의 적은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었으나 부정선거 사태가 발생하면서 최우선의 적은 유시민의 참여계가 되었고, 동지에서 적으로, 적에서 다시 동지로 변신한 새진보통합연대도 적이 되었다. 거기에 2000년 민노당 창당 이래 자주파의 또 다른 축으로 굳건한 연대를 이뤄

25) 5월 19일 페이스북 등재글.

26) 2012년 5월 14일 전자회의로 속개된 중앙위원회에서 경쟁명부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안 및 혁신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확정되자 박영재 당원이 분신을 기도하여 6월 22일 사망했다.

오던 울산연합도 적이 되었고 마침내 국민 다수를 적으로 돌리며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만 것이다.

## 5. 결론

광주대단지과 8·10 사건에 따른 사회적 차별과 배제는 성남시라는 도시 전체를 범죄와 빈곤의 상징으로 낙인찍었다. 차별과 배제의 기억은 1980년 ‘5월 광주’를 만나 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주민 60%가 호남 사람인 성남시로 회귀시켜 고향에서의 학살 소식을 알리게 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 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론의 등장은 향후 주사파가 성남시 청년운동의 주류가 되는 배경이 되었고, 차별과 배제의 기억은 혁명의 잠재적으로 승화하여 운동역량으로 동원되었다. 1987년 6월항쟁기를 거치면서는 용성총련 등 인근 지역 대학생들이 결합하면서 경험한 자의 기억이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 계승되었고, 1990년대 대중적 통일운동은 그들의 결속과 유대를 강화시켜 새로운 기억과 강한 정체성을 만들어냈다.

경기동부연합은 두 가지 기억을 갖고 있다. 하나는 운동의 잠재적으로 승화된 광주대단지 기억이고 또 하나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개인적 삶을 유폐시킨 공동체의 기억이다. 그 기억들은 다시 두 가지 죽음의 기억과 연관되어 있다. 하나는 공권력의 계획적 배제와 무책임 속에 굶주려 죽은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고, 또 하나는 공권력의 부정의에 항거해 스스로 죽음을 택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다. 전자를 통해 전유된 공포가 망각의 가능성을 약화시켰다면, 후자는 기억 의례의 원천을 제공했다. 경기동부연합은 두 개의 기억을 자산으로 집단의 정체성을 만들고

두 개의 죽음을 채찍질 삼아 일체감과 유대를 강화하여 온 것이다.

그들은 국가가 명명한 이름을 거부하고 그들이 선택한 이름을 부여했다.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에 난동과 폭동의 딱지를 떼고 혁명의 전통이란 훈장을 붙였으며, 국가보안법상 ‘적국’에는 ‘동포’의 이름을,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자주·민주·통일 운동의 표찰을 붙였다. 승리한 지배자의 역사가 아니라 패배한 피해자의 기억을 선택한 것이다. 삶과 유리된 역사 대신 집단의 직접적 경험과 연계된 구체적인 기억을 집단 기억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집단기억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다. 기억의 고착과 집단의 덧이다. 집단기억의 두 함정은 비례대표 사태에서 스스로를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 여기게 만들었고 그 결과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말았다. 3월 17일 관악을 경선에서의 문자메시지 사건은 조직이 구성원에게 거짓말을 강요한 일이었으며, 5월 12일 중앙위원회의 폭력사태는 자파 아닌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행위였다. 그들이 단상을 점거하는 순간 세상과 그들 사이에 선이 그어졌다. 그러면서 경기동부연합은 스스로를 규정할 세 번째의 기억과 세 번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몰리며 10여 년의 진보정당운동과 수십 년의 자민통 운동이 한꺼번에 부정당한 기억과, 스스로를 말하지 못한 채 분신한 박영재 당원의 죽음이 그것이다. 2013년 3월 현재 그들의 세 번째 기억은 “세계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탄압 속에서도 동지애로 철통같이 무장하여, 그 탄압을 정면으로 뚫고” 나온 기억이 되었고, 세 번째 죽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하여, 동지를 위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마저 내던진 사건이 되어, 통진당을 “활활 타올랐던 박영재 동지의 넋이 살아있는 정당”으로 만들었다.<sup>27)</sup>

경기동부연합과 세상 사이에 그어진 금에는 공범이 있다. 스스로를

차별과 배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기동부연합의 인식은 다른 가치체계나 ‘종북’의 꼬리표만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꼬리표에 수반되는 억압과 강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억압과 강제의 주체는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종북’의 꼬리표가 달린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생사여탈권을 준 저승사자와도 같고 그 앞에서는 꼬리표를 뒤로 감춘 채 침묵해야만 한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침묵을 강제당하고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게 되면서 그들의 기억은 서서히 고착되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임미리 2013, 124).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국가보안법 아래에서 치열한 비판과 사투(思鬪)는 불가능하고 변화 역시 기대할 수 없다. 기억을 고착시킨 공범은 바로 국가보안법으로 사상의 자유를 금한 대한민국이다.

비례대표 사태에서 보수 여당에 앞서 경기동부연합을 비난했던 통진당 신당권파에게도 책임은 있다.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명당) 사건<sup>28)</sup>이 발생했을 때 유시민은 “정치적 존재 이유를 상실한 주사파를 지금까지 살려놓은 책임은 그들을 무작정 배척하고 고립시켜 지하로 몰아놓은 우리 사회의 편협함에 있다(유시민 1999, 83)”고 했으면서도 13년 뒤 주사파와 손을 잡았다. 한편 2008년 민노당 분당 직전, 자주파 청산을 위해 ‘종북’의 칼을 휘둘렀다가 국회의원 자리를 위해 통진당으로 결합했던 진보신당 탈당파들, 유시민의 말대로라면 진작 죽었어야 할 주사파를 살려놓은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다.

창당 이래 최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통진당이 조만간 소멸될 것

27) 2013년 3월 24일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출범식의 이석기 의원 격려사. 이석기 페이스북에서 발췌.

28) 이석기는 민혁명당 경기남부위원장 출신으로 2002년 구속됐다가 2003년 8·15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집단기억이 강고한 만큼 쉽사리 불씨가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 또 자신의 과거를 전적으로 부정당하는 수모를 겪은 것은 경기동부연합만이 아니다. 과거 한때 자민통 운동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비례대표 사태의 기억을 공유하면서 재집단화할 가능성도 있다. “벗들이, 민중들이, 그래, 고생했다. 오해도, 아쉬움도 있었지만 … 다시 믿어보마 …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 할 때까지 “5년이 고 10년이 고” 다시 그들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박을 것”이다.<sup>29)</sup> 다만 그때는 그 민중들이 지도의 대상이 아니라 거꾸로 그들을 견인할 집단지성의 주인공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과거의 기억을 자산으로 삼되 새로운 역사의 물결을 읽어낼 때 ‘당원들의 눈높이’를 ‘국민들의 눈높이’로 바꾸고 “괴물”<sup>30)</sup>의 탈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김민*

## 참고문헌

- 강옥초, 2002. “그람시와 ‘서발턴 개념’.” 『역사교육』 제82호, 한국역사교육학회, 135-161.
- 김 원, 2011.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 현실문화연구.
- 김종엽, 1998. 『연대와 열광』, 창작과비평.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사업

29) 범경기동부연합의 일원이 2013년 3월 1일 통진당 3기 지도부 출범식 때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30) 경기동부연합이 언론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판지일보>에 ‘우리 안의 괴물-경기동부 (판지일보 2012/03/21)’라는 기사가 실리면서부터이다.

- 최종보고서 경기 지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성남6월항쟁2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2007. 『성남6월항쟁20년기념』.
- 손정목. 2005. “8·10사건의 경위. 서울시의 입장에서.” 『광주대단지 사건의 역사적 재조명 학술회의 자료집』. 성남문화원.
- 송홍근. 2012. “최홍재 인터뷰: 반미친북 민족주의가 종북보다 더 위험하다.” 『주간동아』 844호. 40-43.
- 안병직. 2001. “집단이 기억을 만들 듯, 기억이 집단을 만든다.” 『신지식의 최전선1』. 한길사. 174-189.
- 유시민. 1999. “주사파 간첩, 그럼 나는? 나는 부끄럽다.” 『월간말』 제104호. 80-83.
- 이정현. 2012. “경기동부연합과 성남시의 수상한 공생.” 『월간조선』 통권 388호(2012-07). 102-114.
- 이창언. 2011.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과 정치조직 논쟁.” 『기억과 전망』 통권 제24호. 6-52.
- 임미리. 2012.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의 재해석.” 『기억과전망』 통권 26호. 228-268.
- \_\_\_\_\_. 2013. “통진당 당권파와 서발턴 의식.” 『국제평화연구』 제5권. 97-126.
- 정영태. 2012. 『파벌』. 이매진.
- 정형주·박우형. 2012. “연구보고서: 성남시 2단계 재개발 추진 해결 방안.” 통진당.
- 정호기. 2004.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정치, 사회적 과정과 자원 동원.” 『한국사회학』 제38집 2호. 221-247.
- 정희정. 2004. 『윤홍길 소설 연구—197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진경. 1988. 『민족자주화운동론 1』. 백산서당.
- 조희연. 2001. 『한국사회운동사』. 한울.

주민교회역사편찬위원회. 2003. 『민중의 수레를 끌고 새 하늘 새 땅으로: 자료로 본 주민교회 30년사(1973.3~2003.3)』.  
 홍진표·이광백·신주현. 2010. 『친북주의 연구』. 시대정신.

Guha, Ranajit. 1983. *Elementary Aspects of Peasant Insurgency in Colonial India*.  
 (한국어판: 김택현 역. 2003. 『서발턴과 봉기(식민 인도에서의 농민 봉기의 기초적 측면들)』)

<언론보도>

『경향신문』.  
 『동아일보』.  
 『판지일보』.  
 『레디앙』.  
 『민중의소리』(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발행).  
 인터넷언론 『민중의소리』.  
 『한겨레신문』.

<구술 사료>

구술자	면담일	생년	관련 경력
김미희	2013-05-12	1967년	터사랑청년회 활동, 국회의원(현)
박봉준	2012-08-16	1936년	1969년~1997년 성남시청 재직
박우형	2012-11-03	1964년	민노당 성남시 수정구 위원장
선 별	2012-08-01	1974년	서울시 강남구 개포고등학교

이상훈	2012-07-06	1967년	터사랑청년회 회장
이수열	2013-03-19	1960년	성남시대학생연합회 활동
이해학	2011-06-02 2012-06-19	1945년	성남시 주민교회 담임목사
정형주	2013-02-27	1964년	민노당 성남시 중원구 위원장
최만순	2012-06-21	1960년	성남시 낙생면 거주, 성남문화원 부원장(현)
하동근	2011-06-02	1953년	모란단지 거주, 성남문화연구소 소장

<기타>

통계청(www.kosis.kr).

성남시의회 속기록(www.sncouncil.go.kr).

성남통계연보.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www.yolsa.org).

디지털성남문화대전(seongnam.grandculture.net).

대통령보고서. 1970.05.16. 보고번호 제70-305호. 보고관 김태경.

대통령보고서. 1971.08.11. 보고번호 제71-458호. 보고관 정종택.

대통령보고서. 1971.10.14. 보고번호 제71-631호. 보고관 정종택.

투고: 2013.3.26 심사: 2013.4.11 확정: 2013.5.5